

조선시대 말기까지 성행했던 택견은 일제강점기를 기점으로 인멸의 위기로까지 내몰린 이후 그 명맥의 유지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긴 암흑기를 거쳐야 했다. 회생의 활로가 트인 것은 1983년 6월 1일 택견이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부터였다. 1984년 이용복 선생에 의해 한국전통택견연구회가 설립됐으며, 이후 문화공보부 사회단체로 등록돼 활성화의 길을 걷게 됐다.

택견의 본격적인 대중화는 부산에서부터 시작됐다. 1985년 6월 30일 서울, 부산, 충주의 3개팀과 100여 명의 택견회원, 그리고 3000여 명의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전국택견경기대회가 구덕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것이었다.

1985년 1월에는 전국 연맹의 성격을 띤 부산광역시택견협회가 창설됐고 최순환 그린조이 회장이 초대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로부터 부산경남결연택견대회, 영호남결연택견대회 등 영·호남을 아우르는 택견대회를 개최했으며, 1992년 대한택견연맹이 서울로 독립해 이전한 후 부산광역시택견연맹(이하 부산택견연맹)은 지역 내에서 독자적인 택견 보급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부산택견연맹은 정태석 한국디자인 대표가 12년째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 장기 전국택견대회를 부산에 유치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부산 지역 내의 택견인구는 현재 누적인구가 80만여 명에 이르며, 매일 1000여 명의 택견 회원이 관내에 소재한 택견전수관에서 수련에 매진하고 있다. 아울러 택견 중흥의 발상지라는 자긍심으로 매년 각종 전국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현직 회장

정태석  
한국디자인 대표이사  
- 부산 미남로터리 회장  
- 부산고등학교 총동창회  
감사

주요 연표

일자	내용
1983.06.01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지정
1984.09.20	한국전통택견연구회 설립(문화공보부 사회단체)
1985.06.30	제1회 전국택견경기대회
1991.01.14	대한택견협회 사단법인허가(체육청소년부) - 초대회장 김상훈(부산일보사장) 취임
1998.01.24	부산광역시체육회 준가맹
2002.02.25	부산광역시체육회 정가맹
2007.01.27	부산광역시택견연맹으로 명칭 변경
2011.10	제92회 전국체육대회 택견경기(시범종목) 참가(~2012)

역대 회장

제1대	최순환	1985~1990
제2대	김상훈	1990~1994
제3대	임용식	1994~1996
제4대	김상훈	1996~2002
제5대	정태석	2002~현재

현직 회장 및 임원

연맹 직위	성명	소속
회장	정태석	한국디자인 대표이사
상임부회장	최재윤	(주)치우 대표이사
	윤경석	한국한의원 원장
부회장	김정수	부산종합사무기구 대표
	유제구	무진아크릴 대표
	우인호	(주)우호건설 대표이사
	이용우	부산동구전수관 관장
	이성우	히노무라 대표
이사	정연천	성공애드컴 대표
	최병주	법률사무소 변호사
	노순창	부산본부전수관 관장
	김용신	부산수영구전수관 관장
	한정민	부산다대전수관 관장
감사	김수니	부산가야전수관 관장
	강건호	부산연제구전수관 관장
	이상은	전 부산시의원
전무	권오명	
	이종륜	부산사하구전수관 관장



**선수등록 현황**

연도	계(팀/인원 수)	구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2007	7/14	-	1/1	2/3	2/2	2/8
2008	4/17	-	0/0	0/0	1/1	3/16
2009	197/10	2/69	2/36	2/20	2/31	2/41
2010	58/216	13/55	14/50	10/24	6/22	11/65
2011	58/212	12/46	14/58	9/17	9/22	14/69
2012	30/61	5/8	7/18	4/6	6/19	8/19

**전국체육대회 성적(시범, 미개최 종목)**

연도	획득메달(금/은/동)	순위	
		남자부	여자부
2011	1/1/1	1	2
2012	1/1/2	2	2

47

부산  
당구  
연맹

**현직 회장**

신상기  
나눔법무사사무소  
사무장  
- 2006.08  
우리합동법무사사무소  
사무장  
- 2006.09  
에이원법무사사무소  
총괄사무장  
- 2008.04  
신용국변호사사무실  
사무장  
- 2009.09  
나눔법무사사무소  
사무장

부산당구연맹은 부산광역시에 당구를 보급, 홍보하여 시민들의 여가생활 영위에 도움을 주고, 엘리트 및 신인, 학생선수를 발굴해 개인과 국가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설립됐다.

1981년 부산당구경기연맹으로 출발해 1996년 부산스포츠당구협회로 재창립했으며, 1998년에 대한체육회 인정종목으로 승인받아 부산광역시스포츠당구협회로 개칭했다. 2001년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로 승인돼 명칭을 부산광역시당구연맹으로 변경하면서 이종부 회장이 제1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2005년 대한체육회에 대한당구연맹이 정가맹단체로 승인되면서 이듬해인 2006년 제87회 전국체육대회 전시종목으로 선정됐다. 이후 2008년 전국체육대회 전시종목과 시범종목으로 개칭됐다. 2009년 제5대 회장으로 안철홍 회장이 취임했고, 2010년 부산시체육회 정가맹단체로 승인됐다.

2010년 부산동의공고 당구부 창단을 시작으로 2011년에도 성심보건고 내에 당구부를 창단했다. 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부터 당구가 정식종목으로 개최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동의공고, 성심보건고, 부산시체육회 팀이 부산의 당구를 대표하고 있다. 역대 회장으로는 제1대 이종부, 제2대 장사행, 제3대 이상민, 제4대 김홍렬, 제5대 안철홍 등이 있다.

부산당구연맹은 매년 전국규모의 대회에 참가하는 한편 엘리트선수의 육성과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부산시와 부산시체육회, 대한당구연맹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부산광역시장배 전국당구대회를 2010년부터 3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개최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3년 세계 당구 챔피언십 개최를 위해 모든 사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반인들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당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학교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부산당구연맹은 2012년 현재 제6대 회장인 신상기 회장과 부회장 7명, 채문철 전무이사를 비롯한 10여 명의 이사진이 부산시체육회 팀의 훈련 및 대회출전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의공고를 비롯해 성심보건고 등 부산당구연맹 소속선수 10여 명도 국내외의 크고 작은 대회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2010년부터 매년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종합대회인 부산광역시장배전국당구대회를 국내 최대 규모로 개최하면서 스포츠당구의 위상 제고는 물론 한국 당구의 새로운 중심지로 급부상 중인 부산시와 한국 당구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역대 회장**

제1대	이종부	2002.02~2004.12
제2대	장사행	2005.01~2008.01
제3대	이상민	2008.01~
제4대	김홍렬	2008.01~2012.12
제5대	안철홍	2012.01~
제6대	신상기	2012.12~현재